

농식품부-aT, 미국산 신선란 수입한다

계란 가격 안정 위해 224만 개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흥문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 1항차 물량이 23일 인천 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산 신선란 수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신선란 224만 개 수입을 발표한 이후 16일 만에 이뤄졌다. aT는 엄격한 국내 검역 조건을 충족하는 신선란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협력해 미국 청정지역 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전용 화물기를 투입했다.

초도 물량은 약 112만 개로, 미국 농무부(USDA)가 검증한 미국산 백색란 A등급 L사이즈(56.7g 이상) 계란이다. aT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총 2항차를 통해 224만 개의 계란을 분할 반입할 계획이다.

도착한 계란은 국내 지정 국제

공인검정기관을 통해 엄격한 검정을 거치며, 보관 온도 기준을 기준 4~12°C에서 0~10°C로 강화하고 한글 표시사항·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후

설 명절 이전까지 주요 유통업체와 식자재 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까다로운 검역 조건 속에서도 계란 수입업체와 항공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했다”며 “이번 긴급 수입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의 계

란 가격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상황과 계란 수급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계란 수입 여부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itimes.com



▲ 미국 현지 대한항공 신선란 탑재 사진(aT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우수기업 선정

재생에너지 확대·청년 정착 지원 등 성과로 2년 연속 수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통합적으로 실천하며 상생 협력을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영 실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있는 농어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 소통경영 실현을 3대 ESG 목표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E) 분야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해 155개 지구에서 총 159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

전소를 운영하며 연간 약 4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또한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84㎿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해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소득 보전을 동시에 추진했다.

사회(S) 분야에서는 미래 세대 육성과 ESG 경영 문화 확산에 힘썼다.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고, 289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인권 교육과 심화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을 적극 지원했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소통경영 실현이 두드러졌다. 공사는 전사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을 도입했으며, 정책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창구 '농어촌드림'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1단계 농장 진입로 생식회 도포



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승돈 청장,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밭농업 기계화·AI 전환·병해충 대응 강화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병해충 대응 체계 구축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이 청장은 벼멸구와 깨씨무, 니별 등 병해충 대응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기관과 협업한 종합 대응 체계 마련과 약제 내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 예산 확보와 대국민 소통 확대를 위해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돈 청장은 간담회 말미에 성과 중심의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농촌진흥청의 존재 가치를 농업인과 국민에게 보다 명확히 알리고, 직원들이 현장 중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우’·‘목양’, 국산 사료용 벼 종자 보급 시작

사료용벼 ‘목양’, ‘영우’ 2품종 보급

종으로 알곡과 줄기, 잎을 모두 사료로 활용할 수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충부와 남부 평야지 재배에 적합하다.

두 품종 모두 적정 이앙 시기를 지켜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자를 소독할 때 온탕 소독은 피하고 약제소독을 권장한다.

사료용 벼는 기존 벼 재배에 사용하던 농기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벼 대체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종제 벼 생산과 활용은 국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농가의 재배 부담을 줄여 농업경쟁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hanmail.net



▲ 종제 벼 품종 영우(농진원 제공)

사료용 벼 ‘영우’와 ‘목양’ 2개 품종이며, 포장단위는 20kg이다. 보급 종자는 전량 소독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된다.

‘목양’은 만생종 품종으로 충부와 남부 평야지 및 간척지에서 재배할 수 있으며, ‘영우’는 중만생

국립종자원, 육묘업 신규 등록자 교육 시작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김천, 의산, 서울, 대구 등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월·김천), 원광대(3월, 의산), 서울대(7월, 서울), 경북대(11월, 대구)에서 진행된다.

대표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육묘장 경영에 필요한 관련 제도, 무병·우량묘 생산 기술, 병·해충 관리, 육묘장 현장 학습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전년도 수료자 의견을 반영해 24일 집합교육과 25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신청은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로 하면 된다.